

2. 성경의 바른 연구를 위하여

2012. 1. 8.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새해가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성경과 성경예언의 바른 연구를 위한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딤후2:15]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성경을 올바르게 읽어야 성경과 성경의 예언을 올바르게 깨닫는다고 말씀하시면서 七十生子非吾子家産傳之壻他人勿取에 대한 예화를 하셨습니다. 유언을 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읽었을 때 바른 뜻을 알았다고 했는데, 것처럼 성경도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다는 성경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지난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성령의 교통과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잘 복습해 주셨네요. 고후 13:13에 오늘날 목사님들이 마지막 속도로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 중에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 중에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교제, 또는 사귄다고 번역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과 친교를 하려면 영이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지요. 요4:24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 곧 참된 친교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배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이 됩니다. 요3:5,6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나면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교통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읽고 깨닫기 위하여 거듭나는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하겠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며 자기가 거듭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감정적 현상은 아닐까요?

답: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가 이 감동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대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와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의식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새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좀 더 성경에 계시된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이 좋겠지요.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김영진 목사가 낭독>

[요3:1~7]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예, 이 말씀에 사람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경험없이 성경을 읽고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논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성적이면 그 해가 더 큼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이고 학문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3. 거듭나는 것과 복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실례의 말씀이면 용서하시고요. 아무튼 손에 잡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까? 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듣기에 그렇군요. 먼저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로 하지요.

복음이 바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딤후1:10,11을 목사님이 읽으시겠습니까?

[딤후1:10,11]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었다고 가르치고 바울은 이 복음의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망을 폐하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낸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썩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폐한 것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신 것이 생명과 썩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에 속하여 썩어짐의 종노릇을 했는데, 로마 8:21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 4:22에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이라고 했지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의 실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을 받아서 썩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길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가르쳤는데, 이 사실을 사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다고 가르칩니다. 벰전 1:3,4을 좀 읽으시겠습니까?

<김영진 목사 봉독>

[벰전1:3,4]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지요. 그 결과로 썩지 않는 기업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과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듭나는 방법은 사도 베드로는 벰전 1:23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읽어보시지요.

[벰전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도 거듭나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이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에는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썩지 않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 거듭나는 것인데 베드로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했지요. 거듭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11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말씀이지요. 요6:63을 목사님이 읽어보시지요.

[요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말씀과 상관없이 일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과 일치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상관없는 사상을 주장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

니다. 요16:13~15을 목사님이 읽어보세요.

[요16:13~15]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성령께서 성경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도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엡5:26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엡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물로 씻는데 깨끗해지기는 말씀으로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물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상은 요15장에도 있습니다.

[요15:2,3]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도 예수께서 해 주신 말씀을 따를 때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지요. 깨끗해지는 것과 말씀,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잘 연결 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거듭나는 것을 성경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베드로는 또 물을 침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벰전3:21을 읽어보시지요.

[벰전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데 침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읽은 벰전1:3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거듭나는 것을 연결하여 말씀했고, 여기서는 부활과 침례를 연결하여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말씀과 예수님의 부활과 거듭나는 것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인데, 거듭나는 것은 성경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의 사고방식이 영적인 것이 됩니다. 영적 의식(意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8장에 이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롬8:5~9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도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롬8:5~9]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5절에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했지요. 9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했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뿐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려면 거듭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미래를 말한 예언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4. 목사님, 감사합니다. 거듭남, 곧 중생에 대한 말씀을 성경말씀으로 잘 풀어주셨습니다. 이런 기초 위에 성경 예언을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학문과 지식으로 풀이하다가 영동한 길로 들어서기 쉽겠는데요.

답: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벤후3: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는 말은 왜곡한다는 뜻입니다. 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푸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1:20,21에서 예언은 사람의 생각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로 풀어서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구절은 지난 시간에 본문으로 읽었지요. 사사로이 풀다는 말이 바로 개인적 생각으로 풀이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해석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임해야 합니다. 창세기 40:8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단단히 하고 성경 예언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를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진리를 옳게 분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중에 포함된 예언을 연구할 때에 지금까지 나눈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원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경 예언을 이야기해야 하겠지요.

5. 그러면 이제 성경 예언의 성질이라고 할까요? 예언을 주신 이유를 선명하게 밝히고 그 예언전 성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예언을 주신 이유, 그보다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른 차례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답: 감사합니다. 맨 먼저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인데, 율기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창세기를 첫 성경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모세가 그것을 기원전 1500년 경에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약 3500년쯤 전이지요. 그때는 어서 감독이 계산한 성경 연대대로 하면 아담이 창조된 후에 약 25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곧 아담의 범죄로 다 사형수가 된 때입니다.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실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 사형을 면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다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하겠네요.

[요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애청자들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언 이야기를 들으시고 깨닫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